

문 (사도행전 2:5-13)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권세가 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권세가 나타난다. 반드시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된다. 인생의 문이 열린다. 언약으로 잡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언약이 되기 바란다. 사단은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박살내야 한다. 말씀이 들어와서 언약이 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할 것 없고 박살나는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것이 되는 길이 뭐냐면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지만 이것이 근본이다.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게 만일 천명이 있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이다. 내 나이라든지 상황 여건등이 아무 관계 없다. 누가 방해해도 아무 필요 없다. 모세는 80세에 천명을 받았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그때 몇 살이었겠는가? 적어도 100살 넘었을 것이다. 그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드로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설게 신경쓸거 없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설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나 계획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되어 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복음을 안 누리고 있으면 설계가 또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일은 있을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거 되돌아 보면 이런거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확인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인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약속이다. 창 3:15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말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인간에게 복음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리는 자는 증거를 보게 되어 있다. 응답을 주세요라고 할수 있지만 딱 누리면 증거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누림이 깊어지면 하나님하고 생각이 통하게 되어 있다. 세계복음화와 통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제목이 문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을 여셨다. 세계복음화의 문을 15개 나라에 그 자리에서 여셨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응답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굉장한 메시지이다.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시자마자 첫 번째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림이 깊어지면 인생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인생에 놀러 있다. 인생을 정복하고 인생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경제에 놀러 있다.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놀러 있다. 될수 있다. 인간은 저주에서 나올 수 있다. 지옥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되 받아치고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인간은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사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약속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약속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동안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지 많이 봤다. 우리 자신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다. 옛날에는 기도응답 하나 받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그렇다. 나도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구해낸다. 그정도가 아니라 정복한다. 언약을 잡아야 하고 누리는 비밀은 이것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하기 바란다.

1. 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구약에서도 보면 영적으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이 적

절한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 날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안식일로 기준하면 49일째 와야 되는데 안식후 첫날 50일째 왔다. 의미있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안식의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50일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이 50일은 구약시대의 오순절 지킬때도 늘 50일 때였다. 이미 이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이 성령님 오실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 부활하시고 40일동안 제자들과 계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문단이 그렇게 나누어 진다. 첫 번째가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해진 것이다. 두 번째가 이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성취라는 것이다. 그리고 3천제자 일어났다. 대역사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다 바쳐서 난리가 났다. 이것이 다섯 번째였다. 그런데 그 날 성령님 역사했는데 기적 하나 나타났다. 그것이 방언이다.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방언을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날은 그 방언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음수 있는 방언이었다. 마쓰다 목사님이 어느날 한국교회 새벽예배가서 예배드리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라고 했다. 그 전에도 한국말 공부한적 없고 그날부터 한국말 나오는 것이다. 그런 방언이 나왔다. 그래서 열다섯 나라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겠는가?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공식적으로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방언이 일어났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해야 하는가? 방언주러 왔다고 해야 하는가? 성령충만 주시려고 왔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다. 문 열러 오신 것이다. 무슨 문인가?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실려고 오신 것이다. 뻔한 장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설명도 필요없다.

많은 성도들은 응답받기 원하고 전도자들 응답받기 원한다. 근본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각이 꽂히면 큰 인생 된다. 틀림없다. 여러말 할 것도 없고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것 들어와야 한다. 이것 안 들어오면 늘 갈등이 있다. 질문 생각하고. 이것 들어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필요없는 것이다. 즉시로 15개국에 문을 여셨다. 지난주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가나안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신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통통어서 최고의 응답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이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말씀성취다. 이것은 설명이다. 그 다음 3천제자 일어났어. 결과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난리났다. 재산 팔아서, 그것도 나타난 결과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 이 결과인가? 그건 자동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하여, 통해야 한다. 특별히 내가 진짜 성경같은 인생 살고 싶으면 통해야 한다. 아직 나는 준비 안되었고 그리스도 모르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할 일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내가 평생을 두고 가장 가슴에 담아야 할 일, 너무 답은 간단하다. 그런데 맘대로 잘 안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야 안되겠는가? 그냥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화신이다 나는 여기에 평생을 건 자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요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많은 것을 하시지만 첫 번째 하신 일이다.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미국과 남미에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미국 교회에 문을 열어서 아직도 미국 교회에 남아 있는 많은 제자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것이 진짜 내게 언약이 되면 기도응답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교회의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 남미는 아주 황금어장이

다. 누구든지 복음 잡고 움직이면 문이 막 열리게 되어 있다. 목사제자,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 레닌트 꼭 있다. 이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진짜 성경적이다. 땅에 충만해야 한다. 우리는 별로 안 난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 세명인데, 어쩌다 쌍둥이가 나와서 셋이지 아니면 둘로 끝났을 것이다.

우리는 100지교회 100팀이란 기도제목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지교회 중직자 운동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지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눈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야 한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이 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중직자도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70인 제자 중직자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 바란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미국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승리와 정복과 축복을 가지고 미국과 남미의 문을 열고 안디옥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과 남미의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이유는 우리의 복음이 진짜 정확한 복음이니까. 지금 교회에 증거되고 있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깐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을 보냈는데, 너 눈 여겨 잘 보라는 것이다.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을 보냈는데, 그가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눈여겨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답이다.

2.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한다. 그래서 문 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일은 사실 없다. 그렇게 봐야 한다. 문을 열기 위해 하는 것이 흑있다면 복음 누리고 행복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고 사단 무너지고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있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일이다. 그래도 꼭 할 일이 있다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날 내게 사명을 주신다. 처음에는 그냥 그리스도 누리고 있었는데, 사명 주시면 좀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때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행복해 진다. 전에는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면 계산이 되어지고 그랬다. 그런데 사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게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뜻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땅 중심으로 살면 말이 많다. 천국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이유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도 내 맘대로 안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 누리고 응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전도 선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없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그 날도 그 내용은 그리스도였다. 성령님이 역사 해주옵소서, 이것은 다음이고 그리스도 이것이다.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이 이 문단의 내용이다. 방언을 해서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었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땅에 오셔서 하실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이어가실려고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처음 하실일 내용 당연하다, 그리스도. 이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당연하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잘안되어지면 발버둥치는 것도 시간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좋은 욕심인데, 나는 왜 안되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한번씩 뒤를 돌아보면 안되는 것 같아도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이다. 응답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뜻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적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없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기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것이다. 다른 기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고백하는 기도를 주셨다.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오랫동안 나는 왜 누리는게 안되냐고 기도했다. 나타나는 응답이나 이런거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왜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왜 안되냐는 것이다. 품 잡고 한번 고백을 시작해보면 입에서 동동돈다.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예상치 않은 날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 때는 별다른 날이 아니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기도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다. 목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성도를 위한 기도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담고 생명걸고, 하나님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무릎 꿇고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 누리고 내게 누린 언약 고백하고 하는것과 별도로 진짜 기도하는 것이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 언약안에서 관련하여 내게 기도를 주셨다. 그것을 하면 된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일본 이분 삼분 이렇다. 길게 집중할 만한 수준이 안된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전과는 영 다르지만 아직도 수준이 깊은 기도 심분이 안된다. 그러나 자꾸 되어가고 있다. 감사하다. 왜 되겠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것이다. 성령님 왜 오셨는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뻔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복하고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 내가 손을 들어야지, 하나님 바꾸세요? 안된다. 마가복음 9:29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물론 치유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원리가 오직 치유에만 적용된다고 할수 없다. 내가 안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 그것이 기도이다. 물론 언약 안에서의 기도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래도 틈을 열어줬다. 그것이 기도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정말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런데 잘 안되어지는것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왜 이래 안되어지나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나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이 증거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성도들 중에 어려운데 복음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 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한다. 답 난다. 틀림 없다. 나도 힘들었다. 표정관리를 해서 그렇지. 이런 과정은 누구든지 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야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다. 고난은 그런면에서 귀한 것이다. 조건은 복음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뀌버린다. 틀림없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전도 선교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살리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지난주에 봤다.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너무한다. 오늘 그 일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전부 여기에만 포인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충만 성령충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한다. 성령충만, 왜? 하나님은 성령충만이 목표가 아니고, 그 방언을 통해서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나머지에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말씀성취라고 예전부터 말해왔다. 문 열리기 시작하니까 삼천제자 일어났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것이다. 여기에 감동된 제자들이 재산을 다 바쳤다. 이것이 성령충만의 이유이다. 성령충만 받으려고,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수만번 들었을 것이다. 다시한번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